

† <미사 및 본당모임 안내>		
금일 미사 독서: 김보미 로사, 이승환 안드레아	+ 지난주 우리의 정성	
조은영 베다, 한병철 바오로	봉헌금: \$ 199	
금일 미사 복사: 김지원 카린, 권민호 바오로,	교무금: \$ 0	
이주현 안드레아, 이지은 웰프레드	매일미사: \$5	
금일 미사 해설: 윤지희 데레사	연미사봉헌: \$30	
금일 봉헌봉사: 성인영 마리스텔라	축성 감사헌금 (조남석): \$50	
	헌배성사 감사헌금 (황성필/성인영): \$50	
반 주: 조은영 베다, 황지혜 레지나, 강동현	-----	
회 계: 황성필 요한,	합계 : \$ 334	
친교실 정리: 1 구역		

주 일 미 사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고 백 성 사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30분부터 미사 전까지.
성가대 연습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지하 성가 연습실]
친교/간식 모임	매주 미사 후 [지하 친교실]

† <공동체 모임 알림판>	
남성교우 기도모임	격주 금요일 (4 월 5 일 저녁 8:00, 사제관)
성모회 금요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오후 1 시 (장소: club.catholic.or.kr/thekccm 게시판 참고)
교리 모임	미정
골프 모임	동계 휴식기
테니스 모임	매주 일요일 (Nielsen Tennis Stadium, 시간: 페이스북클럽 및 홈페이지 참고)

† <구역모임 알림판>	
1 구역	매월 둘째주 토요일
2 구역	매월 첫째주 토요일
3 구역	매월 셋째주 토요일
대학원 구역	미정
학부생 구역	미정

복 음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4,1-12
	주간 첫날 새벽 일찍이 여자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그런데 그들이 보니 무덤에서 돌이 이미 굴러져 있었다.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다. 여자들이 그 일로 당황하고 있는데, 눈부시게 차려입은 남자 둘이 그들에게 나타났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으로 숙이자 두 남자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살아 계신 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찾고 있느냐? 그분께서는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되살아나셨다. 그분께서 갈릴래아에 계시 때에 너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해 보아라. 사람의 아들은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여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 내었다. 그리고 무덤에서 돌아와 열한 제자와 그 밖의 모든 이에게 이 일을 다 알렸다. 그들은 마리아 막달레나, 요안나,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였다. 그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사도들에게 이 일을 이야기하였다.
	사도들에게는 그 이야기가 헛소리처럼 여겨졌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가서 몸을 굽혀 들여다보았다. 그곳에는 아마포만 놓여 있었다. 그는 일어난 일을 속으로 놀라워하며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주임 신부
유성모 요셉
(608) 293-1114
사목회장
이종재 프란치스코
(608) 772-5701

매디슨한인천주교회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Madison

홈페이지
club.catholic.or.kr/thekccm
Facebook 그룹
Facebook 검색에서
“매디슨 한인천주교회” 검색
이메일
kccmwi@gmail.com

부활 성야

2013년 3월 30일

<제 1 독서>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1,1 — 2,2<또는 1,1.26-31 ㄴ>	
1 독서 화답송	◎ 주님, 당신 열을 보내시고, 우리의 모습을 새롭게 하소서. ○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크시고 크시어라 주 저의 하느님 당신께선 영광과 위엄 입으시고 광채를 겉옷 삼아 두르셨나이다. ◎ ○ 바닥 위에 굳건히 땅을 세우셨으니 영영 흔들림이 없으리이다. 온 땅이 바다에 덮여 있더니 산들도 물 속에 잠겼나이다. ◎ ○ 샘물들이 시내를 이루게 하사 산과 산의 사이로 흐르게 하시니 공중의 새들도 그물가에 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 나이다. ◎
<제 3 독서> 탈출기의 말씀입니다. 14,15—15,1 ㄴ	
3 독서 화답송	◎ 주님을 찬양하세. 그지없이 높으신 분. ○ 주님을 찬양하세. 그지없이 높으신 분, 주님께서는 기마와 기병을 바다에 처넣으셨도다. 주님께서는 나의 힘, 나의 굳셈이시며,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그분께서는 나의 하느님이시니, 어찌 찬양하지 않겠으며, 나의 선조의 하느님이시니, 어찌 우러러 영광 드리지 않으랴. ◎ ○ 당신의 유산으로 주신 산으로 당신께서 머무시려고 마련하신 그 산으로 그들을 이끄시어, 당신 몸소 정하신 성소에 그들을 심으시고, 주님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시리라 ◎
<제 5 독서>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55,1-11	
5 독서 화답송	◎ 너희는 기뻐하며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길으리라. ○ 진정 하느님께서서는 저의 구원이시기에, 제가 당신을 의지하오니 무서울 것 없나이다. 주님께서서는 저의힘, 저의 노래, 저의 구원 이로소이다. 너희는 기뻐하며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길으리라. ◎ ○ 그분께서 큰 일을 하셨으니 그분을 찬양하고 이를 온 세상에 알려라. 수도 시온아, 기뻐하며 외쳐라 너희가 기릴 분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시로다. ◎
<바오로 서간>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6,3-11	
서간 화답송	◎ 알렐루야, 알렐루야, 알렐루야. ○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 좋으신 분을 영원도 하시어라 그 사랑이여. 이스라엘 가문아 밀켜라 영원하신 그 사랑 ◎ ○ 집짓는 자들 내버렸던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이다. 주님께서 이루신 일이옵기에 저희 눈에 놀랍게만 보이나이다. ◎
[영성체송]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파스카 제물로 희생되셨으니, 순결과 진실이라는 누룩 없는 빵으로 축제를 지내사이다. 알렐루야	
[오늘의 성가] 봉헌: 130 성체: 129 파견: 134	



보 답

예수님은 믿지만 부활은 믿지 않는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저와 함께 영화를 만들고 있는 분들 ‘부활은 종교적 상징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영화 쪽으로 발을 들여놓은 저는 그분과의 기투합해서 영화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저는 주님과 성모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서 영화도 하기로 하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은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그만둬야 하는 것일까.... 계속 고민을 하면서도 저는 주님께 기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풀리지 않는 시간이 길어지자 주님께 원망이 들었습니다. ‘아니, 왜 막으시는 거예요? 병도 고쳐주셨는데....’ 실컷 원망하다 보니 제가 주님께 드린 보답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루르드에서 돌아온 후 유작이란 기분으로 만든 메시아를 다룬 작품인 레드문도 제함으로만 했다고 믿었으니까요.

제 몸을 고쳐주신 데엔 분명히 뜻이 있으실 텐데 저는 그저 사랑받는다고 우쭐하여 주님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막 깨달았을 때, 저와 영화를 만들던 분이 이제 다른 작품을 해 보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생각난 것이 지금의 작품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로마의 박해를 피해 도망치던 아피아 가도에서 예수님을 만나 다시 로마로 돌아가 순교하게 되었다는 그곳에 지은 퀴바디스 도미네 성당.... 루르드에서 로마로 갔을 때 그 작은 퀴바디스 성당에서 본 예수님의 발자국은 뭐라 형언할 수 없는 충격과 감동이었습니다. 이제 그 감동을 부활을 믿지 않는 그분과 만들기로 한 영화 속에 녹이려 합니다.

이 작품은 로마와 나폴리에서 촬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주인공과 요한이라는 청년이 각자 퀴바디스 성당에서(지금은 성 세바스티아누스 성당으로 옮겨 놓음) 주님의 발자국을 보는 장면을 찍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이 주님의 발자국을 보고, 로마로 돌아간 베드로 사도를 떠올리며 주님께 구원받는 내용도 찍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이들이 부활을 믿게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이 영화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는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조금이나마 알기를 바랍니다.저는 이제 주님께서 저를 치유해주시고 생명을 연장해 주신 것에 보답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치유해 주신 것은 이러한 작품을 계속 만들라는 뜻으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그리하여 제 작품을 통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기쁨과 치유를 얻고, 조금이나마 주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시 일할 수 있게 된 것은 주님께 감사하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항미나 아가다 / 만화가

†오늘의 묵상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가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신앙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십자가 위의 죽음은 어리석음이고, 수치스러운 것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부활하셨기에 십자가는 하느님의 지혜이며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죄는 영영 저주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로 우리는 죄를 두고 ‘복된 탓’이라 부르며, 그 죄로써 위대한 구세주를 얻게 되었다고 노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이 세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과 권력을 움켜쥔 이들만의 차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정의와 공정을 실천하는 것이 돈과 권력을 차지하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로 진정 끝없는 사람이 첫째가 되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부활로 섬기는 사람이 참된 주인이 되었고,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옮겨가는 관문이요 징검다리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열 번, 백 번 부활하신다 해도 우리 자신이 부활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노예 생활이며, 웃음거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가신 것처럼 우리 또한 미움에서 사랑으로, 다툼에서 화해로, 불평에서 감사로 건너가야 하는 것입니다.

† 부활삼종 기도

- 하늘의 모후님, 기뻐하소서. 알렐루야.
- 태중에 모시던 아드님께서, 알렐루야.
-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나이다. 알렐루야.
- 저희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알렐루야.
- 동정 마리아님,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소서. 알렐루야.
-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나이다. 알렐루야.

†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온 세상을 기쁘게 하셨으니
성자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의 도움으로
영생의 즐거움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 공지사항

1. 부활 대축일 미사가 내일 오후 2 시 St. Paul 에서 있습니다.
2. 내일 부활 대축일 미사 후 모금 하신 Rice Bowl 을 황성필 요한(회계 사목위원) 형제님께 전달해주세요
3. 성삼일 예식과 부활절 미사를 원활하게 진행해 주시고 참석해주신 전례부, 성가대, 독서단,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모든 교우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동체 소식

<교무금>

매월 첫 주일 (4월 6일)은 교무금 납부의 날 입니다. 현재 메디슨 공동체 총 가구수 (학부생 제외) 는 55 가구인데 비해 교무금 실제 납부 가구수는 11가구 밖에 되지 않습니다. (납부율- 20%). 교무금 납부는 신자들의 의무인 만큼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무금 납부: 황성필 회계사목위원). 교무금 납부 봉투 및 교무금 약정서는 친교실 회계 담당 테이블에 놓여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독서단 모집(계속)>

독서 봉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은숙 글라라 자매님 (esjeon95@mac.com) 혹은 김보미 로사 자매님 (bomi921@gmail.com)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교적정리 (계속)>

교적 정리가 진행중입니다. 성당 임구에 비치된 교적 양식을 작성하셔서 교적을 담당하는 **홍진국 클레멘스형제님**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는 성당 홈페이지 게시판의 양식을 다운받으셔서 작성하신 후 메일로 (jkhong2350@yahoo.com) 보내주셔도 됩니다.

<성가대 모집 (계속)>

성가대원과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교우분들께서는 지휘자 한영주리드비나 (lidwinahan@gmail.com) 에게 문의하시거나, 미사전후에 지하 Music Room 에 직접 들려주셔도 됩니다. 교우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남성교우 기도모임 (계속)>

공동체의 남성교우 기도모임에 참여하세요. 격주로 모여 다함께 묵주기도 바치고 묵상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다음 모임은 **4월 5일 (금) 저녁 8 시 사제관**에서 가질 예정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신부님 또는 홍진국 클레멘스 (jkhong2350@yahoo.com) 형제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